

강원도에 새 불교 바람

‘강원 지역 공무원 불자들이 새로운 불교 바람을 일으킨다.’

강원도청 불자회(회장 이공우·국 제협력실장)가 지난 11월 7일 도청 회의실에서 밝기인 총회 및 정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강원도청 불자회 출범은 기존 춘천·원주·홍천·평창 등 4곳의 공무원 불자회 활동에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강원 지역 미장립 14곳 시·군 불자회 결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충남·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청 불자회 구성이 이번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지역 불교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청 불자회는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지역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향후 신생활동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청 불자회는 우선 도내 18

강원도청 불자회는 또 회원 확보차원에서 불자회원 1인당 2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1+2 운동’을 벌이고,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법당과 연계한 군포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청 불자회는 안정적인 신생활동 확보를 위해 도청 내 법당 개원 추진, ‘불교교리강좌’ 개설, 정기 성지순례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청 불자회 이공우 회장은 “그간 강원도청에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도청불자회 지부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 불자들이 한데 뭉쳐 지역 불교 발전에 한 몫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도청불자회 창립, ‘1+2운동’ 전개

춘천 등 기존 공무원 불자회의 구심점 불자회 없는 시·군에도 ‘창립 견인’

개 시·군을 묶는 강원도공무원불자연합회를 내년 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불자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내 주요 사찰을 돌며 공무원 불자회의 신생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사진은 조상구 회장의 대표작 ‘용두관음’.

동화사서 불화 전시회

달서북 법우회 조상구 회장

최근 현지 불자 경찰관이 관세음보살 불화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 달서경찰서 법우회 조상구(55·법명 송한·정보2계) 회장. 조 회장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화사 설법전 앞마당에서 ‘단풍철에 만나는 관음의 참모습’을 주제로 ‘지련관음’ ‘용두관음’ 등의 관세음보살 불화와 ‘8쪽 병풍’ ‘달마도’ 등 총 60여 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조 회장이 불화를 그린 지는 20년.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불교공부를 하다 불교미술가 영범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불화세계에 빠져들었다. 이후 왕성한 활동을 보인 조 회장은 그간 제5·6회 대구경북 미술대전 한국화 부분 입선, 제11회 공무원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제4·5회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초대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친 조 회장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그림을 그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깊은 뜻을 불화에 담아 전시회를 계속 열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불자회 만들 것”

교불련 창원지회 정호중 회장



“불교는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사불자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원지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호중(57·창원 웅남중학교장·사) 회장. 정 회장은 창원 성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향후 지회 운영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창원 지역 55곳 초·중·고등학교에는 불교학생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치됐습니다. 사찰의 불교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불자회 결성은 청소년 포교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불자 교사들의 다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원시 사암련과 손잡고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마련

정 회장은 이를 위해 50여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와 사찰을 돌며, 담당 교사와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사암련협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을 마련하는 한편 창원시 불림전, 주남저수지 등에서 ‘불교학생회 자연생태환경보호운동’도 전개한다.

특히 정 회장은 신입회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개별적인 신생활동을 펼쳐온 불자 교사들을 발굴해,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간 창원 지역에는 불자교사 모임이 없었습니다. 늦게 창립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신생활동 전개와 함께 신규 회원을 꾸준히 모집해 불자 교사들의 역량을 한데 묶어내겠습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매주 한 차례 재직사찰 성주사에서 <금강경> 교리 강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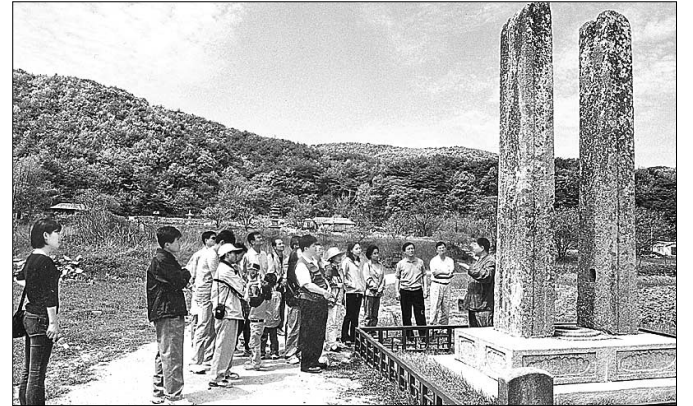
경향신문사 불자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간지 직원불자회. 마음의 편으로 지상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경향신문사 불자회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불법을 배우고,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삶의 빛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성인들의 신생활동입니다. 때문에 70여 명의 회원들은 부처님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게 이로운 일을 전하려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조간신문을 만듭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문’, ‘불교법세가 들끓는 풍기는 신

교를 외호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업무로 인해 수행과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자, 지난 3년 동안 쉬는 날을 이용해 서울·경기 지역의 지국을 방문해 배대 소년들에게 티셔츠를 전달하고 삼지작업을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계종 불족위원회로부터 연등축제 정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동포와 백혈병 어린이 돕기 등의 자비행도 펼쳐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사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2년 4월 서산 개심사와 보현사지 일대를 방문, 단간지주를 살펴보고 있다.

유일 일간지 불자회 ... 북한 동포돕기 봉사

12월 부터 범명부르기 운동 ... 불성 일깨워

문’이란 평가를 듣고 있는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지난 1995년 4월 서울 북한산 노적사에서 신문사 직원과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초대회장은 당시 비상계 획부장 김병락 불자들이 맡았습 니다. 초창기에는 당시 비상계 획부장 김병락 불자들이 맡았습 니다. 초창기 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이 후 자체 신생활동은 물론, 언론계 에서의 불교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빠르게 돌아가는 신문 제작 일정으로 사 찰순례법회나 봉사활동을 자주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각자의 업무에서 전방 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있습 니다. 항상 초발심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 원들의 ‘편’은 사회를 이끌고 불

앞으로 우리 신문사 불자회는 교리공부와 참선정진을 통해 선 정의 힘을 키우는데 신생활동에 역점을 줄 계획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짚을 내, 참선의 시 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또 한국언 론사불자연합회 차원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불자언론인들과의 교류를 넓혀나가고, 미장립 언론 사 불자회 창립을 위해 불자회 역 량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 께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의 지혜 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근무에 서도 항상 하심(下心)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범명 불러주기 운 동’을 벌입니다. 서로의 불성에 대 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불제자인 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펼치는 운동 입니다.

■황수빈 총무

우리 모임에선



대흥사서 합동수련회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사진)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연합회 합동수련회를 봉행한다.



신입회원 통도사 기본 교육

경남 경산조폐청 금강회(회장 정철규·사진)는 11월 19일 양산 통도사에서 신입 회원 환영법회 및 사찰 기본예절교육을 실시한다.



42장정 교리강좌 열어

철도청 구로승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제·사진)는 11월 19일 구로 관음포교원에서 주지 일명 스님에게 <42장정> 교리강좌를 듣는다.



언불련, 가을 맞이 특강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사진)는 1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포 교당에서 ‘직장불자의 수행법’을 주제로 원장 현진 스님에게 특강을 듣는다.



법원서서 추계 합동법회

전국금융단체자연연합회(회장 이탁수·사진)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원사 대웅전에서 추계 합동 법회를 봉행 했다.



‘기도는 어떻게...’ 법문 들어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11월 17일 화천 지암사에서 주지 동원 스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법문을 들었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창령·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문경·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창원/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선기획 저렴한 경비로 인도성지를... 인도성지 배낭순례 10일 (불교8대성지) 1,2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카르(열반지)-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5일(129만원), 1월 9일(139만원), 2월 12일

▶조건 : 항공료, 전용버스, 보험료, 숙박비 포함(10명 이상 출발) ▶불포함 : 비자대, 입장료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카르(열반지)-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12월 7일, 1월 7일,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몰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겐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카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보카리(안디투르나등 히말라야산)-카투만두

▶출발일 : 12월 4일, 1월 3일,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차이푸르(라즈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교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키주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지)-알라하바드-바라나시(겐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1월 6일, 2월 12일